

독일성서공회판 통독성경에 대한 평가와 우리말 통독성경을 위한 제언

유은결*

1. 들어가는 말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지만 동시에 가장 안 읽히는 책’으로 꼽힌다. 이런 사정 탓에 많은 목회자 및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심한다. 비교적 근래에 독일에서 출간된 몇몇 통독성경¹⁾들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시도가 활발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본 논문은 통독성경들의 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향후 유사한 형태의 통독성경을 기획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통독성경에 대한 평가

우리가 살펴볼 성경들은 새로운 역본이 아니라, 통독을 위하여 새로운 체제를 갖추거나(『일년 통독성경』[Jahresbibel]),²⁾ 책머리에 해설 등을 덧붙인 것이다(『등대성경』[Leuchfeuer], 『나침반성경』[Kompass Bibel], 『당신을 위한 성경』[Die neue Gute Nachricht. Bibel für dich]).³⁾ 『일년 통독성경』이 루

*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약학. jakob38@daum.net.

- 1) *Die Jahresbibel. Nach der Übersetzung Martin Luther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Kompass Bibel. Gute Nachricht Bibel: Mit farbigem Bild- und Informationstei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2); *Leuchfeuer. Gute Nachricht: Themenbibe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2); *Die neue gute Nachricht Bibel für dich*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 이 성경들은 본고에서 ‘통독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지칭하지만, 모두 동일한 목적 하에 기획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2) Jahresbibel은 직역하면 “1년 성경”이겠지만, 그 편제상 통독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Jahresbibel을 소개하는 본고에서는 『일년 통독성경』이라 통칭하겠다.
- 3) 독일성서공회의 홈페이지(www.dbg.de)는 이 성경들을 ‘연구용 성서’(Studienbibel)라고 분류한다. 이 세 성경들 역시 스스로를 ‘통독성경’이라 지칭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침반 성

터역 개정판(1984)을 본문으로 채택한데 반해, 나머지 성경들은 “현대독일어 성경”(Gute Nachricht Bibel in heutigem Deutsch) 또는 루터역 중 하나를 기본으로 하여 앞에 안내를 붙였다. 따라서 『일년 통독성경』과 나머지 세 성경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성경들은 공히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널리 유도한다는 점에서 어떤 판본이 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2.1. 일년 통독성경(Jahresbibel)

『일년 통독성경』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년 통독성경』은 본래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동안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날짜별로 본문을 제시하고 있다. 날짜별로 읽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읽을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일년 통독성경』은 시편 중심의 편제를 지니고 있다. 하루에 읽을 성서 본문은 시편의 한 부분과 구약, 신약으로 구성된다. 즉 시편을 365일 동안 매일 조금씩 읽도록 분배하여 배치하고, 구약은 모세 오경부터, 신약은 마가 복음부터 수록하고 있다. 셋째, 『일년 통독성경』은 신구약성서의 조화를 염두에 둔 채 발간되었다.⁴⁾ 즉 일반 성서로 통독할 때는 성서 본문의 유기적인 관계성은 잊은 채 단지 읽는 행위에 만족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도는 단순히 기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된다는 통념에 반대하는 것이고 『일년 통독성경』을 발간하게 된 배경이 된다.

『일년 통독성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본 성경의 가장 큰 장점은 신학적인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한 채 본문을 읽도록 배려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런 의도로 일말의 해설도 배제하고 본문비평주마저각주가 아니라 본문 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본 성경이 일말의 해설도 없이 통독과정에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독자가 통독에 집중하도록 배려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은 일반 성경이 아니면 해설성경 일색인

경), 『당신을 위한 성경』은 책의 양 날개에 1년 동안 성경 읽기표를 제공하여 통독을 유도하고 있다. 세 성경 모두 독일성서공회에서 발간된 것이고 유사한 체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묶어서 통독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현대독일어 성경”에 단지 부록을 붙인 듯한 외관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룬다.

4) “[...] 구약과 신약은 이런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된다. 구약은 신약을 토대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통찰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다.” *Jahresbibel*, i [일러두기(Vorbemerkung)].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해설이라는 미명 아래 독자의 해석을 임의로 주관하거나, 통독을 위해서 별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기존 성경군에 좋은 범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루터역을 본문으로 삼고 있고 통독 과정에 어떤 안내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또 성경 통독의 동기 부여를 오직 독자 안에서만 발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년 통독성경』은 어느 정도 **신앙적 배경을 갖춘 크리스천에게 적합할** 듯 싶다.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관련 홈페이지⁵⁾에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일년 통독성경』은 하루 약 15분 동안 읽도록 꾸민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라는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 가령 100일 동안 하루에 15~20장 정도 - 읽는 것이 차라리 더 용이할 것이다. 편집자가 성경이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지만, 『일년 통독성경』은 경건의 시간(QT) 등 개인의 묵상 때 읽을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독 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안내나 방식을 - 본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 친절하게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통독성경’의 본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본문의 배치도 다분히 임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편은 1월 1일, 33:1-5에서 시작해서 매일 5~6절 정도를 읽도록 제시하는데, 1월 25일은 시편 111편부터 읽다가, 2월 3일은 갑자기 시편 119편으로 넘어가서 읽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약도 창세기에서 사사기까지는 일반 성서의 순서를 따르고 있으나, 5월 14일부터는 전도서를 본문으로 삼는다. 룯기는 10월에, 이사야서는 6월에 등장하지만, 12 소예언서는 12월에 읽는 등 본문은 일정한 법칙이나 신학적 구도를 따르지 않는 것 같다. 신약 역시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야고보서, 디모데전후서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일년 통독성경』이 특정 신학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배치를 이렇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은 ‘통독’이라는 목적의 달성 외에 다른 소득을 운위(云謂)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약점을 『등대성경』, 『나침반 성경』, 『당신을 위한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완한다. 세 판본들은 『일년 통독성경』의 형태에 안내를 덧붙인 것

5) 『일년 통독성경』이 별도의 홈페이지(www.die-jahresbibel.de)로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쇄본에 있는 것보다 더 차별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 심지어는 왜 시편을 중심으로 구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 같은 독일성서공회에서 발간된 *BasisBibel*은 전자매체 시대에 걸맞는 풍성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가외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유은결, “<서평> *BasisBibel: Neues Testament und Psalmen*”, 『성경원문연구』 34 (2014), 302-314를 보라.

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대안으로 기획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읽기 쉬운 본문에, 독자들이 본문을 읽는데 역시 최소한만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독성경을 준비하는데 단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2.2. 등대성경

『등대성경』의 특징은 ‘등대’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정보를 80쪽 정도의 분량으로 성경 앞 별도의 자리에 배치한 것이다. 성경 약어표처럼 다른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외에, 성경 각권을 한 마디로 요약한 일람은 독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⁶⁾ 이보다 더 두드러진 『등대성경』의 특징은, 독자가 영적인 도움이나 신학적 설명을 필요로 할 때 성경의 어디를 보면 좋을지 안내를 붙인 것이다. 유사한 시도가 다른 해설성경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등대성경』은 한결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예컨대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을 좋아합니다”라는 주제 하에 독자들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들을 소개한 후 좀 더 심층적인 성찰로 유도하는 본문을 열거한다(20-21). “의심이 생길 때”라는 항목에서 잘 드러나듯이, 다른 성경처럼 관련구절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먼저 유익한 도입으로 해당 주제에 접근함으로써 성경을 직접 찾아 읽을 동기를 부여하고 이해를 돕는다(64-65).

『등대성경』은 이처럼 목회적 차원의 안내를 덧붙인 성경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통독성경의 본질이 본문에 대한 선입견을 가급적 배제한 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본다면, 이는 통독성경의 장점을 일정 부분 양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정 필요를 살핀 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⁷⁾ 이 점을 정교하게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등대성경』은 유사한 편제의 다른 두 성경과는 달리 성경 읽기표를 생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등대성경』은 **전적으로 통독을 목적으로 한 판본**

6) 예컨대 “창세기: 세계의 시작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 대한 책”;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생활에서 어떻게 해방하셨는지에 대해 기록한 책”으로 설명한다. *Leuchtfuehrer*, 9.

7) 편자인 키스(Rainer Kiess)는 이른바 이 ‘주제성경’이 더 넓은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Leuchtfuehrer*, 5. 그러나 본문 자체가 “현대독일어 성경”으로서 차이가 없다면 이 성경을 다른 것들과 구분하는 것은 역시 안내 부분이다. “사랑이 최가 될 수 있는가?”(28-29),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가?”(68-69) 등의 주제들은 이 성경의 적용 중심 특징을 드러낸다.

로 보기가 어렵고,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답변을 주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중요했다면 30개 정도의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더 본격적인 상담형 안내로 기획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 생각한다.⁸⁾

물론 위에서 지적한 바 적용 중심의 안내가 통독성경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이유로 『등대성경』을 더욱 가깝게 두고 즐겨 읽게 된다면 통독성경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독의 동기와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이에 맞는 성경의 기획이 필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2.3. 나침반 성경

『나침반 성경』은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통독성경의 모형을 제시한다. 구약에 관련된 정보는 권두에, 신약에 관련된 내용은 권말에 수록되어 있다. 해석학적 적용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등대성경』과 비교하면 현저히 신학적인 문제에 집중한다. 가령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은 어디에 사시는가?”, “욥기 - 성서가 말하는 병과 치유”, “신구약 중간기” 등의 설명은 좀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이다. 신약 부분의 설명도 유사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선포”, “첫 번째 기독교 공동체”, “바울의 선교 여행” 같은 항목 역시 진지한 독자들의 주목을 끌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정보가 유익할지라도, 편제상 일관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충실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현대독일어 성경”의 “개념 색인”(Sacherklärungen)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제로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예컨대, “계약”이 구약 설명 부분에서 다루지는데(21), 그 항목은 “현대독일어 성경” 자체의 개념색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357). 부활 역시 반복해서 취급되는데(해설 70; 개념색인 352-353), 이 경우 개념색인의 것이 도리어 더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다. 물

8) 인상적인 것은 『등대성경』이 성경을 묵상할 때 따라야 할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경 안에서 읽기 - 그러나 어떻게?”(In der Bibel lesen - aber wie?)라는 장(14-17)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단계로, ① 텍스트의 ‘구분’, ② 그 상징세계에 ‘머무르기’, ③ ‘나만의 것 발견하기’, ④ 해석학적으로 ‘묵상하기’ 등으로 설명한다. ‘성경 읽기’(die Bibel lesen)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읽기’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성서의 해석이 단순히 읽는 행위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포착한 것으로 이채롭다. 본문의 이해는 독자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깨달을 때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대성경』의 안내는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른 『나침반 성경』의 해설이 개념색인보다 다소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그것도 성서신학적 관심사의 지극히 일부분만 섭렵하는 것을 고려하면, 일관된 체제를 해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나침반 성경』은 다분히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독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독성정보다는 해설성경의 기능을 더 원하는 독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지한 독자는 해설성경을 읽으면서 필요한 곳의 신학적 논의를 접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일정 부분 통독성경의 목적에서 멀어지는 것일 수 있다. 편집자가 『나침반 성경』의 어디에서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기존의 “현대독일어 성경”의 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기획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나침반 성경』처럼 해설을 별도의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본문 자체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는 한결 유리할 것이다. 이런 형태는 독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편집자의 안내를 참조하기는 어렵지만, 해설성경이 가진 단점을 극복하는 측면도 있다. 가령, 성경 본문에 병기된 해설에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는 독자는, 이 해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해설성경의 해석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넘어서, 독자가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독성경은 이른바 연구와 숙고를 목적으로 한 해설성경과는 다르기 마련이고, 또 달라야 할 것이다.

2.4. 당신을 위한 성경

『당신을 위한 성경』은 본고에서 다루는 통독성경 중, 본문으로 삼은 “현대독일어 성경”을 충실히 조명하는 판본이다. 이른바 길잡이의 분량은 가장 적지만, 본문의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친절한 설명을 제공한다.⁹⁾ “현대독일어 성경” 본문의 소제목과 병행 구절, 관주, 각주 등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설명해주는 것은 작은 배려이지만 불가결한 것이다. 다른 두 통독성경이 “현대독일어 성경”에 별도의 해설을 덧붙인 것에 불과한 듯한 이질감을 주는데 반해서, 『당신을 위한 성경』은 “현대독일어 성경” 자체에도 없는 설명을 해 줌으로써, 원래부터 합본으로 기획된 것 같은 인상마저 준다.¹⁰⁾

9) *Die neue Gute Nachricht für dich*, 11-14.

10) 『나침반 성경』도 “현대독일어 성경”의 체제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있으나(6-7), 『당신을 위한 성경』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다.

권말에 위치한 “질문이 생길 경우”라는 항목은 해석학적인 내용을 따로 모아 다루고 있다. 가령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말인가?”(51), “왜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는가?”(57-58)와 같은 내용은 『등대성경』의 개인적인 적용만큼은 아니지만, 독자가 본인의 이해와 관련하여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다. 반면 이어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라는 항목에서는 신학적이거나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더하고 있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축제”(68-69)가 역사적인 차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 특별한 의미”(73-77)는 신학적인 문제로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등 기독교론적 호칭의 의미 차이를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일 것이다.

『당신을 위한 성경』은 “마지막으로 유용한 것”이라는 항목에서 성서시대표에 세속사와 문서의 저작 연대를 병기(併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마지막은 성서 지도를 덧붙임으로써 마무리한다. 본 성경이 상이한 차원의 정보를 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을 주는 이유는, 그것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했기 때문이다.

부족한 지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기왕에 해설하기로 하였다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항목도 눈에 띈다. 가령 “신구약 중간기”라는 정보에서 400년간의 역사를 훑는데 단 1쪽도 안 되는 분량만을 할애하고 있다(46). 전자매체 시대에 가외의 정보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당신을 위한 성경』이 외경 역시 수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향후 통독성경을 준비할 때에 고민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본다. 원래 “현대독일어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등대성경』 등이 오히려 삭제한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통독’을 원하는 독자는 구약과 신약 모두를 남김없이 읽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의 통전적 성격 및 성서의 구속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 전통의 독자를 위해서는 외경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 논의의 목적은 상기 통독성경들을 단지 평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말 통독성경을 준비할 때 고려할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성경들 외에 더 살펴볼 내용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3. 성서 통독에 고려할 다른 방법들

한국에서는 해설성경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데 반해서, 통독성경은 그다지 각광을 받지 못했다.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으나, ‘성경은 각자가 알아서 읽으면 그뿐’이라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구에서는 성경을 접하는, 전통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

3.1. 일일요절(Losungen)

‘일일요절’(Losungen)은 유럽 교회 - 그 중에서도 독일 교회 - 가 성서를 읽는 독특한 방법이다.¹¹⁾ 『일일요절』은 약 280년 전 친첸도르프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전해진다.¹²⁾ 작은 책자에 매일 두 성경 구절을 각각 구약과 신약에서 선별하여 읽고 묵상하도록 제시한다. 최근에는 묵상을 돕기 위하여 간략한 질문을 더하거나 유명 인사의 명언을 수록하기도 한다. 적절한 찬송이나 기도문을 담은 판본도 구매할 수 있다. 『일일요절』의 의도는 분명하다.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읽고 적은 양을 깊이 있게 묵상하라는 것이다. 『일일요절』의 본래 목적은 성경을 **읽도록** 하기보다는, 이미 읽은 성경을 **묵상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비록 특정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체 성경을 읽도록 유도하는 통독성경과는 대척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유사한 해석학적 원리 또한 발견된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독자가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채 독자 앞에 놓인다는 점이다. 본문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전거(典據)라기보다, 도리어 나를 모종의 결단으로 이끄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런 일일요절의 순기능은 한국에서 신앙생활의 주요 방편 중 하나인 암송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정 구절을 암송하도록 요구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골라서 암송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일일요절의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일일요절은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성서의 한 두 구절을 묵상하는데 있으므로, 원래 문맥과 상관없는 적

11) ‘일일요절’은 매년 새롭게 발간된다. 가장 최근의 판본은 *Die Losungen 2016: Gottes Wort für jeden Tag* (Basel: Reinhardt, 2016). 최근에 한국어로도 번역 출간된다. 헤른후트 형제단 편, 『2016 말씀, 그리고 하루: 헤른후트 기도서』, 홍주민 역 (오산: 디아코니연구소, 2015).

12) 이에 대해서 H. Renkewitz, *Losungen: Entstehung und Geschichte eines Andachtsbuches* (Hamburg: Friedrich Witting, 1967), 22-24를 참고하라. 친첸도르프가 첫 번째로 사용한 날은 1728년 5월 3일로 전해진다. 일일요절은 그 성격상 인터넷에서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 www.losung.de에는 일일요절에 따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¹³⁾ 성경 암송도 그 유익함과 무관하게 동일한 오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일일요절이나 암송은 항상 어떤 문맥에서 그 말씀이 등장한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개역개정』의 고린도전서 10:13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본문은 흔히 ‘모든 시험은 사람이 견딜 만한 것이기에 주신 것이고, 각자는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으니 낙담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1-14의 요지는 결코 은혜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다 다수가 죽었으며(8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 멸망하였으므로(9절),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12절) 우상숭배를 피하라(14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대지이다. 문제는 고린도전서 10:13의 *πειρασμός ἀνθρώπινος* (인간적인 시험)를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번역하고 문맥을 무시한 해석이다.¹⁴⁾ 정확히는 ‘(신적인 시험은 없고) 인간적인 시험만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시험은 없고 **인간이 자초한 시험**만이 있는데(δέ),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πιστός) 우리가 범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13절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14절과 매끄럽게 연결된다.¹⁵⁾

이처럼 성경의 특정 구절을 문맥과 분리하여 묵상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와 정반대의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은 통독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다. 그렇다면 통독과 요절의 관계는 상보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통독을 하는 과정에서 적용이 누락될 경우 단순 독서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그 본문이 본래 주어진 맥락을 무시할 때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될 소지가 있다. 요컨대, **요절의 묵상은**

13) 대표적으로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469-475. 이른바 ‘축자 영감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이사야서 34:16은 문맥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짐승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14)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460-462를 참조하라. 『표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공동』 “인간이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시련들.” 반면 LUT “nur menschliche Versuchung”; ELB “als nur eine menschliche (Versuchung)”; NIV “except what is common to man.”

15) J. Kremer,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RNT (Regensburg: Pustet, 1997), 207-210을 참조하라.

통독으로 보완해야 본문의 메시지에서 이탈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통독은 필요할 때마다 목상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제공받을 때에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¹⁶⁾ 성경은 ‘망원경’으로 보기도 하지만 때때로 ‘현미경’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일일요절은 널리 사용되지 않지만, 말씀을 늘 가까이하는 경건주의의 전통인 만큼 적극적으로 따를 가치가 있다고 본다.

3.2. 성서일과(Perikopenordnung)

앞서 언급한 일일요절이 성도 개인의 경건생활의 수단이라면, “성서일과”(Perikopenordnung)는 교회가 성서 본문을 대하는 중요한 방식이다.¹⁷⁾ 한국 교회에서는 흔히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근거해서 본문을 선택하지만, 이는 유럽 교회의 강단의 현실과 사뭇 다른 것이다. 설교자의 본문은 성서일과로서 미리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은 본문을 누가 선택하느냐라는 사소한 문제인 것이 아니다. 설교자가 본문을 택하는 행위 자체를 이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성서의 해석에 결정적인 차이를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성서일과는 대개 교회력(Kirchenjahr)과 관련이 있다. 좁은 의미에서 교회력은 특정 절기에 사용되는 본문을 가리키지만, 성서일과는 교회가 사용할 본문을 미리 정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유럽의 교회는 심지어 다음 주에 택할 본문을 미리 공개하는 것도 흔한 일이다. 이럴 때 설교자가 눈앞에 있는 텍스트와 상황 중 손쉽게 후자를 선택하여 전자에 강요하는 유혹을 피할 수 있다. 교회력을 충실히 따르는 설교는, 가령 여행 중에 있는 성도가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도 연속성이 보장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아예 1년 동안 설교할 본문을 연초에 미리 정해두는 이른바 ‘설교 기획’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¹⁸⁾ 한국 강단에서 본문의 충실한 주해보다 예화나 설교자의 개인적인 신학과 사회관이 메시지의 중심을 차지하는 원인이 설교 준비를 할 때나 본문을 정하는 관행과 관련이 있다.

16) 동기와 이해에 대해서 G. Theißen, *Zur Bibel motivieren: Aufgaben, Inhalte und Methoden einer offenen Bibeldidaktik* (München: Chr. Kaiser, 2003), 281-285. 극단적으로 말해서 본문 외에 어떠한 장치를 덧붙이거나 체제를 만드는 것은 모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17) 이에 대해서, H. M. Müller, *Homiletik* (Berlin: de Gruyter, 1996), 206-210을 보라.

18) W. Engemann, *Einführung in die Homiletik* (Tübingen; Basel: A. Francke, 2002), 167-170을 참조하라.

설교자가 본문의 의미를 밝히고 선포하는 - 당연한 - 작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 부합하는 본문을 찾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즉 성도뿐만 아니라, 정작 설교자에게 통독이나 QT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령 설교자 스스로가 정한 성서일과라고 할지라도 막상 설교를 준비하는 그에게 이미 정해진 본문은 일종의 부담이다. 처음 본문을 선택할 때는 아직 관여하지 않았던 ‘상황’이 지금 본문을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메시지를 유도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모든 본문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에 메시지를 갖는다는 확신이 설교자에게 필요하다. 설교자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으로 하여금 말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므로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다.²⁰⁾

통독성경의 가치는 이런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통독은 읽고 싶은 내용을 찾기보다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나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을 발견하는 쪽으로 유도한다. 이 원리는 개신교의 성서해석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예시한다. 이른바 ‘오직 말씀으로’라는 원리는 기존의 교리나 나의 관념을 본문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상대화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 이른바 해석학적 전제를 최대한 배제한 채 본문을 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독이라고 할 것이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물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더욱 필요한 독법이라고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우리에게 필요한 통독성경

앞선 우리의 논의를 정리하여 향후 통독성경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측면이 무엇인지 살펴보자.²¹⁾ 앞서 살펴봤던 통독성경들은 나름의 장점이 있음

19) 여기에서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석자의 목전에 놓여 있는 기존의 모든 선이해를 망라한다. H. M. Müller, *Homiletik*, 237-243을 참조하라. 텍스트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본문의 주석에 감안하는 것을 독어권에서는 ‘영향사적 연구’(Wirkungsgeschichtliche Exegese)라고 부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M. Oeming, *Biblische Hermeneutik: Eine Einführung* (Darmstadt: WBG, 2007), 91-102를 참조하라. 기존의 해석은 무조건 배척하거나 거부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해석을 위해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둘 필요는 있다.

20) W. Engemann, *Einführung in die Homiletik*, 277-280을 참조하라.

21) 2000년대 이후 여러 성서공회에서 이미 발간한 성서 활용의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대한성서공회는 2015년 11월 24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런 방향의 사업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였다. 박동현, “한국 교회에서 개역 성경이 갖는 의의 - 개역 성경의 재발견” (서울 정동제일교회: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2015. 11. 24.), 7-55; 옥성득, “대한성서공회 120주년 회고

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4.1. 다양한 목적과 편제의 성경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을 보면, 거의 해설성경 일색이거나 본문만을 담은 판본만 눈에 띈다. 후자를 ‘통독성경’이라 명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간되는 성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독자들을 겨냥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사실상 그 질에 있어서 크게 의심스러운 해설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성경의 다양성은 재질이나 디자인 등 외형에만 머문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각 성경의 독자층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형태를 갖추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²²⁾

우선 **초신자나 신앙적 배경이 깊지 않은 독자들**을 위한 판본이 필요할 것이다. 통독성경에서는, 해설성경에서 흔히 보는 해설 및 적용은, 선입견을 배제한 채 원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 『등대성경』과 같이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주는 지침을 앞에 수록하고, ‘구속’(救贖), ‘인자’, ‘성막’과 같이 그들에게 어려운 단어는 책 뒤의 개념색인에서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통독을 위한 성경이므로 성경읽기표를 넣어줄 필요도 있다.

신앙적 연륜이 있거나 학문적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한 통독성경도 필요할 것이다. 『나침반 성경』처럼 신학적 논의를 책의 앞에 붙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개념색인도 단순히 본문의 이해를 돕는 설명을 넘어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이 목적에 충실하려다 보면 해설성경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 단지 해설의 위치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통독성경은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세한 해설은 피하는 편이 좋다고 본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통독의 성격상 외경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와 전망 - 해방 이후 역사(1945~2002년)를 중심으로” (서울 정동제일교회: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2015. 11. 24.), 56-101을 참조하라.

22) 이것은 해설성경을 기획할 때에도 공히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서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성경원문연구』 9 (2001), 37-38; 왕대일, “우리가 만드는 해설 성서 - 무엇을, 왜, 어떻게: 우리말 해설 성서의 작성과 편집을 위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9 (2001), 115-119를 보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통독성경에 **관주**를 더하는 것이다. 오늘날 관주는 이전처럼 사랑받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한 성경 이해’이라는 전통과도 어울릴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병행 구절과 인용 구절을 밝히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특히 해설과는 달리 통독 과정 중에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자기만의 목상을 방해하는 일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4.2. 번역 당시부터 기획하는 통독성경

전술한 대로 『등대성경』, 『나침반 성경』, 『당신을 위한 성경』은 “현대독일어 성경”을 본문으로 선택하여 편집한 성경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해당 역본은 독일어 “공동번역”보다도 더 풀어 옳긴 번역이기 때문에 이해가 매우 용이하다. 가령 까다로운 로마서 1:17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In der Guten Nachricht macht Gott seine Gerechtigkeit* offenbar: seine rettende Treue, die selbst für das aufkommt, was er vom Menschen fordert. Nur auf den vertrauten Glauben* kommt es an, und alle sind zu solchem Glauben aufgerufen^b” (하나님께서서는 그 기쁜 소식 안에 그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곧 그분께서 구원하시는 신실하심인데,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의뢰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개역개정』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보다 풀어 옳긴 것인데 역문의 단어 수는 많지만 한결 이해하기 쉽다. 본문 안의 *표시로 개념색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b로 대안번역을 제시한다. “현대독일어 성경”이 단순한 의역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예시하는 부분이다. 물론 새로운 번역보다 기존 번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독자들을 위해서 『일년 통독성경』처럼 『개역개정』을 본문으로 택한 성경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독성경이 해설성경에 대비, 충분한 정보를 담을 수 없다는 약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 발간된 *BasisBibel*이나 대한성서공회에서 준비 중인 『새한글성경』(가칭)은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한 역본이다. 기존의 인쇄매체에 다 담을 수 없었던 사진, 동영상, 심도 있는 해설 등을 풍성하게 담을 수 있다면 통독성경과 해설성경의 인위적인 구분도 최대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읽기와 해설은 상호대립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5. 결론

앞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통독용 성경이 아무리 세심하게 제작되더라도 모든 독자의 필요를 채우기는 쉽지 않다. 근래에 독일에서 발간된 통독성경, 『일년 통독성경』, 『등대성경』, 『나침반 성경』, 『당신을 위한 성경』 등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특징이 있지만, 해설성경과 그 목적이 다른 통독성경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해설성경이 독자가 성서를 연구하도록 배려하는 현미경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통독성경은 망원경처럼 성서의 메시지를 통전적으로 발견하며 해석학적 중심을 본문에 두게 한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독자의 해석학적 역할이 비대화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현실에 맞게 다양한 독자층의 필요를 채우는 통독성경의 출현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주제어>(Keywords)

통독성경, 일년 통독성경, 성서일과, 묵상, 설교.

Reading through the Bible, One-year reading Bible, Lectionary, Meditation, Preaching.

(투고 일자: 2016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16년 2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3월 25일)

<참고문헌>(References)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성경원문연구』 9 (2001), 7-40.
- 박동현, “한국 교회에서 개역 성경이 갖는 의의 - 개역 성경의 재발견” (서울 정동제일교회: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2015. 11. 24.), 7-55.
- 옥성득, “대한성서공회 120주년 회고와 전망 - 해방 이후 역사(1945~2002년)를 중심으로” (서울 정동제일교회: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2015. 11. 24.), 56-101.
- 왕대일, “우리가 만드는 해설 성서 - 무엇을, 왜, 어떻게: 우리말 해설 성서의 작성과 편집을 위한 제언”, 『성경원문연구』 9 (2001), 106-124.
- 유은결, “<서평> *BasisBibel: Neues Testament und Psalmen*”, 『성경원문연구』 34 (2014), 302-314.
- Engemann, W., *Einführung in die Homiletik*, Tübingen; Basel: A. Franke, 2002.
- Fee, G.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 Kremer, J.,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RNT, Regensburg: Friedrich Pustet, 1997.
- Müller, H. M., *Homiletik*, Berlin: de Gruyter, 1996.
- Oeming, M., *Biblische Hermeneutik: Eine Einführung*, Darmstadt: WBG, 2007.
- Renkewitz, H., *Die Losungen: Entstehung und Geschichte eines Andachtbuches*, Hamburg: Friedrich Witting, 1967.
- Theißen, G., *Zur Bibel motivieren: Aufgaben, Inhalte und Methoden einer offenen Bibeldidaktik*, München: Chr. Kaiser, 2003.

<Abstract>

Review of German Bible Society's One-Year Bibles and Suggestions for Korean Edition Development

Eun-Geol Lyu
(Ho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Bibles designed for one-year reading recently published in Germany, and to make suggestions for preparing such Bibles for Korean readers in the future. Each of the four versions reviewed has its own strong and weak points. *Jahresbibel*, based upon Luther's translation, has a distinctive order of texts that lists Psalms first, and then texts from the Old and New Testaments. But it does not provide readers with any expository comment. *Leuchfeuer*, *Kompass Bibel*, and *Die neue gute Nachricht für dich*, on the other hand, add informative introductions to the text of *Gute Nachricht in heutigem Deutsch*, helping us read through the Bible and grasp their profound meaning.

Korean Christians have shown so far little interest in Bibles for such reading purpose. But reading through the Bible has much more importance than one might think, for we can find a fundamental hermeneutical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we should not try to justify our thoughts on the basis of the Bible, but rather let the text speak to us and have influence on our lives.

If we are going to provide such Bibles, we need to note that it is advisable to make various versions of one-year reading Bible, depending upon readers' needs first. We then need to adopt readable texts such as 'New Hangeul Translation' which is presently being prepared, in order to facilitate a better understanding.